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

2013

<국정감사 목표>

'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'

K-warter

국회의원 이 명 수 (충남 아산)

2012 국감 미조치 사항 주요내용

- 1. 수돗물 요금 감면혜택에 대한 표준 기준 마련을 통한 제도화 필요
- 2. 수도요금 산정방식 및 지역별 편차 점검 및 개선방안
- 3. 수도계량 검침원 가장 범죄 발생 및 검침원에 대한 범죄 예방 대책
- 4. 수면 태양광 발전사업 효율성 의문
- 5. 4대강 홍보관 전범기업 제품 설치 논란 (빔프로젝트)

「미래 짱기 용수」 확보

○ 용수 수요의 증가 추세

- ・현재:1日 1人 300ℓ
- · 10년 후, 20년 후, 선진형 용수 수요 증가 (수량 + 수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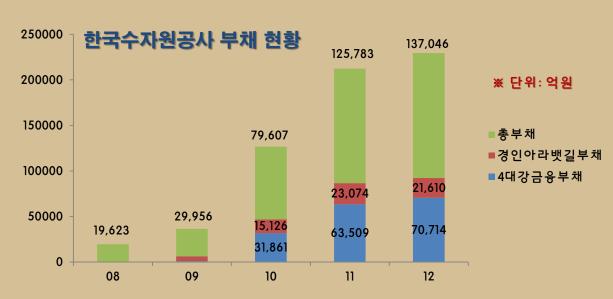
○ 장기 용수 확보 노력 촉진

- · 신개념의 물관리 정책 (가뭄과 홍수 등 장기 기후 변화 관리)
- ·물 공급 대책과 물 수요 관리 정책 병행 Smart Water
- 수량과 수질관리 연계화 및 일원화 추진
- 신규댐 건설보다 기존 댐 관리 강화 우선
- ·지역과 연계하는 종합개발 등의 수자원 가치 극대화, 문화 관광 명소화, 친수 활동 등 어메니티(Amenity 운동 필요)

재무건전성과 청렴성 판단

- 총 부채 13.7조원('12년 現) 중 금융부채만 11.7조원 급증세
- 年 5,100억원 이자비용, 장기간 채권(차환)발행으로 돌려막기 신세
- \bigcirc '댐사업 수익 $\mp 3,500$ 억원', '4대강 사업 이자'로 쏟아 부어야
- 향후 추진계획인'친수구역 사업비용 2조원 규모'도 금융 차입
- 문제는 '청렴성 4급수 4대강 사업 이전 2급수 청정에서 추락'







'과중한 채무와 청렴성 4급수 탈출' 위한 특단의 대책은?

<u>기후변화에 따른 물 관리 정책 변화</u>

- '08년 美 펜타곤보고서, 20년 內 전세계 대가뭄・기근 등 재앙 예고
- 극한 홍수, 가뭄 및 태풍 발생 빈도와 규모가 매년 증가 추세
- 동시에 수질 악화 및 하천생태계 변화, 지하수 염수화 등 난제 발생
- 영국 등 선진국, 기후변화 대응, 국가 물 관리 중, 필요 전략 수립





➡ 「한반도 기후변화 현상 전망 및 예측 연구」와 「수계별 수자원 관리 국가 로드맵」 마련 시급



「태국 물관리사업」수주 관련

- K-Water, 지난 6월, 태국 6.2조원대 물관리사업 '우선협상대상자' 선정
- \bigcirc 총 사업비 11조원 중 56%에 해당하는 방수로, 임시저류지 2개 부분 수주
- ○국내문제, 환경단체들의 해외 물투자사업에 대한 격렬한 반대운동
- 현지문제, 사업지內 주민 및 토지 보상업무 등 난제도 포함된 것

태국 물관리시업 추진 일정					
태국정부, 물관리 마스터플랜 수립					
태국정부,물관리사업국제입찰계획발표					
수자원공사, 입찰사전 자격심사 통과					
1차 제안서 제출					
우선협상 후보대상자선정					
최종제안서제출					
최종낙찰자선정					







⇒ 정부 차원의 적극 협력체계 구축과 다각적 지원 필요

4대강 완공 이후 유지관리 문제

- 4대강 사업의 긍정요인 극대화 및 부정요인 최소화 방안 찾아야
 - ① 4대강 수질이나 녹조, 환경영향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 대응
 - ② 홍수저감 효과 극대화, 물안보 차원에서 확보된 수자원 활용정책 마련
 - ③ '오염의 온상, 둔치의 친수공간 조성 이후'생태 안정 및 유지관리 대책









향후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는 4대강 유지 관리방안 마련과 실천에 혼신의 노력 긴요

4대강 녹조현상 및 수질오염 실태

- 4대강 녹조현상 연례행사처럼 반복, 환경부 업무소관으로 '핑계'
- 지난 8월 점검 결과, 낙동강·팔당호·대청호 등 상수원 남조류 증가세
- ○지난 해 녹조발생 현상, 공사 입장 ⇒ 114년만의 가뭄이 주요 원인
- 환경부 입장 ⇒ 4대강 사업시 설치 '보'가 녹조악화의 원인으로 갈등





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 점검

- 친수구역사업, 목표는 '공익목적 개발', 목적은 '수익목적 개발'
- 부동산개발업 진출 허용은 정부의 부채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惡手
- '우선사업권'과 '건축법 등 29개 법률상의 인·허가절차 예외'부여 특혜
- "빚내서 개발하고, 번 돈으로 4대강 빚 상환" 계획 '희망사항'

구 분	부산 에코델타시티	나주지구	부여지구	
위 치	부산 강서 강동 일원 (11,885천m²)	나주 노안 일원(105천m²)	부여 규암 일원(113천m²)	
사업비	54,386억원	112억원	124억원	
시행자	부산시, 수공(80%), 부산도시공사(20%)	나주시, 수공(100%투자)	부여군, 수공(100%투자)	
기 간	2012-2018 (7년간)	2012-2015 (4년간)	2012-2015 (4년간)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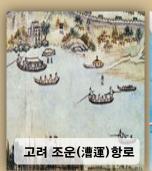
➡ 여건상 불리한「친수구역 조성사업」 재검토와 무리한 사업추진 지양 등 근본대책 필요

경인아라뱃긜(운하) 경영 악화 및 꺽자누꺽 문제

- 초기 민자건설계획 무산으로 公社 100% 투자(2.7조원)로 완공('13년)
- ○향후 40년간 수익사업으로 투자비 회수, 물류단지 분양 등 '저조'
- 김포·인천물류단지(회수계획 규모 53% 차지) 분양률이 57.6%에 불과
- 당초 '경인아라뱃길'목표, 서울시 관할 서해뱃길 사업과 연계개발

▶ 경인아라뱃길 투자비 회수계획 (단위: 억원)

구 분	항만운영수익	운하이용료	물류단지분양	국고지원	합 계
2012~2051년	8,800	1,507	11,727	6,561	28,595
2012년	46	-	3,001	900	3,947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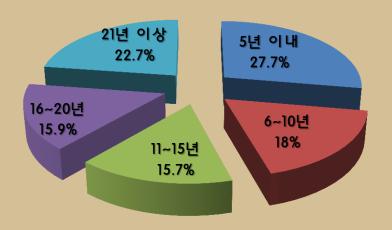


성공은 '서해(한강)뱃길' 추진, 보완 대책은? ➡ '경인운하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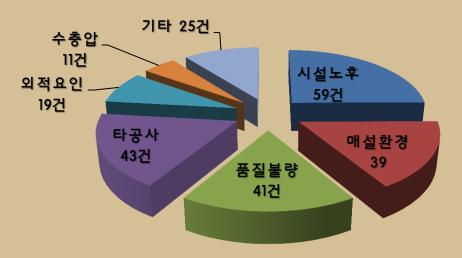
지방상수도 관로 노후화 및 누수 실태

- 전국 상수도관 총 156만km 중 3만5천km(23%)가 20년 이상된 노후관
- 노후관, 수돗물 악취 등 냄새·흐리고 탁한 녹물 발생의 주 원인
- ○지난 10년간 노후 수도관 누수량 84억㎡, 재정손실액 약 5.9조원
- 재정 열악 지자체, 관망개선 부진 ⇒ 누수손실 가중 ⇒ 재정 악화'반복'

▶ 지방·광역상수도 수도관 노후화 현황



▶ 지난3년간(2010~2012) 원인별 관로사고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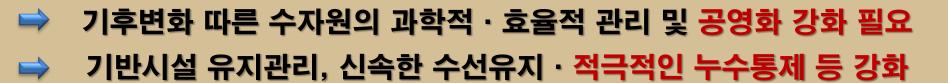


➡ 재정 열악 지자체 고려한 '노후 상수관' 개선에 정부차원 지원

「수도관리 선진국」의 수도관리정책 점검

- 네덜란드, 2004년 민간참여를 금지하는 수도법 개정
- 이탈리아, 2011년 6월 국민투표 96% 반대 민영화 백지화
- 프랑스, 파리 水道를 기존 베올리아 ▷ 파리시로 재공영화
- \bigcirc 100년 빈도가뭄 겪은 스페인 \cdot 영국 \cdot 호주 등 국가 광역상수도 설치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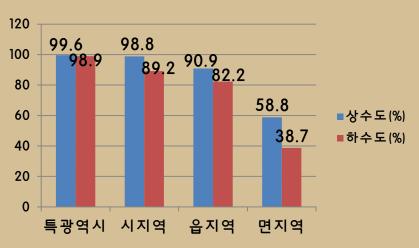
농촌 및 영세민 상수도 보급격차 실태

- 중・소 지자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都農간 상수도 '격차 심각'
- 수도사업의 낮은 수익률・高생산원가, 정수시설 개선 '여력 상실'
- 수돗물 값, 지자체별 상이・영세민 감면혜택, 대도시 'Yes' 농촌 'NO'

▶ 전국 지역별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



▶ 都農 지역 상하수도 보급률 (2011년 기준, 환경부)



› 국고지원사업 전제한 민간투자(BTL)방식 추진과

농촌지역 영세민 위한 수돗물 값 감면혜택 등 K-WATER 역할 중요

시화 멀티테크노 밸리(MTV) 사업

- '07.8월부터 멀티테크노밸리산단 추진, '잦은 계획변경으로 지체'
- 2016년까지 자체 100% 투자 총 사업비 3.6조원·9.836㎢(298만평)
- 시화호 수질개선사업과 미래형 첨단집약 산업의 유치와 육성 목적
- ○문제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처리문제 등 대책 미흡

▶ 반월특수지역(시화 MTV 및 송산그린시티 조성지역) 위치도





➡ 내년 사업비 2조원대 자체자금 마련 대책과 후속조치 방안?



송산 그린시티 사업

- '08.3월부터 그린시티(관광·레저복합) 추진, '잦은 계획변경으로 지체'
- 2022년까지 자체 100% 투자 총 사업비 9.4조원·55.86km(1,690만평)
- 시화1단계 방조제 축조로 발생된 간석지에 친환경복합도시 조성목적
- ○문제는 대책없는 사업비용 조달계획 부지 분양 후 재투자방식

▶ 송산그린시티 위치 및 조감도







내년 이후 사업비 8조원대 자체자금 마련 등 후속 대책은?

「USKR」 토지메각 협상 관련

- 지난 2011년 K-Water와 사업자(롯데)간에 매각대금 5,040억 합의
- 당초 K-Water는 1.2조원, 사업자(롯데)는 1,500억원, 경기도 중재
- \bigcirc 이후 사업자측의 추가 할인(2천억) 요구로 이견, '6년째 허송세월'
- 문제는 '07년 싱가폴이 5.5조원 투입, '10년 개장 年350만명' 성업 중







USKR 추진명분과 타당성 재검토로 적극 협상 필요

K-WATER, "치열해지는 세계 물시장 속으로"

- 세계 물시장, 개방화·민영화·국제화로 선진각국 해외진출 가속화
- 우리나라 경우,「공업용수 분야」에 유럽 다국적 기업 진출 상태
- '05년 인도의 댐과 수력발전소에 수공 최초 기술수출사업 진행
- 올해 태국 수자원관리사업(방조제・저류장 건설) 6.2조원 규모 수주





➡ K-WATER 전문분야 집중, 리스크 높은 해외사업 특성 감안, 경제적 타당성 등 철저 검토 필요